

#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박춘선,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숙자, 이영실,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64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 14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제3의 대안이 아닌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2. 제안이유

-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지역 정체성’이다. 지명 결정 시 ‘고덕’이라는 고유지명보다 ‘지역 안배’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고구려대교’를 제3의 대안으로 교량 명칭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동구는 백제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으로 ‘고구려’는 강동구와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도 가지고 있지 않다.
- 계획단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는 해당교량을 ‘고덕대교’로 명명하고 언론·서울시민·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 이미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돈을 유발하는 결정이 될 뿐이다.
- 명칭 심의·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고덕대교’로 명명할 것을 결의한 뜻을 전달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 3.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 14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지역 정체성'이다. 지명 결정 시 '고덕'이라는 고유지명이 아닌 '지역 안배'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용인구리사업단)는 교량의 명칭을 제3의 대안인 '고구려대교'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교량 명칭 결정에 지역의 정체성,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음의 근거로 교량의 명칭이 반드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1.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검토 중인 '고구려대교'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칭안이다. ‘고구려’가 지칭하는 범주가 커서 특정 교량을 지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동은 백제문화권, 구리는 고구려문화권으로 공통의 상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고덕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상징 교량으로 처음부터 조선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설계 디자인되었다. 고덕동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 친구 이양중의 덕을 높이 기려 ‘高德’이라 칭했던 데서 유래하는바, 교량설계 배경을 살펴본다면 교량의 명칭은 당연 ‘고덕대교’로 명명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설계용역업체 및 교량건설업체는 2017년부터 ‘고덕대교’ 단일 명칭을 사용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며, 고덕대교 인근의 고덕비즈밸리, 고덕역, 고덕천, 고덕산 등 고유지명과도 통일된다. 교량의 상징성 및 이용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교량의 명칭은 당연 ‘고덕대교’로 명명되어야만 한다. 이미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돈을 유발하는 결정이 될 뿐이다.

4. 강동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531억 6천만 원을 납부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강동지역 주민들은 환경, 소음, 안전성 문제 등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였

다. 교량 건설에 재정적 책임과 협력을 다한 강동구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5.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 명칭을 ‘고덕IC’로 명칭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덕대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6.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나 또다른 ‘구리고덕대교’로 명칭 결정 시 1.5km 내 위치한 ‘구리암사대교’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리’ 명칭의 남용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지명 난립을 초래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심의·결정권자인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근거로 ‘고덕대교’로 명명할 것을 결의한 뜻을 전달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2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